

호남 최초 가야역사관 건립 추진

장수군, 문화재청과 협의 통해 심사 사전절차 이행... 2022년 1월 개관 목표

장수군은 한국의 고대사를 재정립 하고 있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을 토대로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호남지방 최초 가야역사관 건립을 추진한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현재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특별회계를 통해 반파국(장수가야의 옛이름)의 조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가야역사관 건립을 진행 중이다.

군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야역사관 건립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가야역사관 건립 첫 단계로 건축 설계공모와 콘텐츠 개발 및 전시물제작을 추진했다.

건축설계공모에는 16개 작품이 출품됐으며 8명의 건축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1개의 당선작과 4개의 입선작이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은 장수지역 가야문화의 특징인 고분과 봉수를 형상화한 건물로 그 독창성과 건물의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콘텐츠 개발 및 전시물제작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서는 최종 2개의 제안서가 접수돼 고고학, 미술사, 박물관, 문화재, 보존기술, 실내디자인, 영상시각 분야의 전문가 7명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한국의 고대사를 재정립 하고 있는 전북 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을 토대로 2022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호남지방 최초 가야역사관 건립을 추진한다.

1순위 평가작은 기존 전시공간을 탈피한 전시구성, 영상아트 및 장수지역 가야문화유산의 이해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건축과 전시물 제작설치는 앞으로 150일간의 설계를 통해 최종 모델이 완성될 예정이며 장수 가야역사관은 제2종 박물관 건립기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호남 최초로 건립되는 장수 가야역사관 건립의 첫 삽을 뜨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최초의 가야역사관인 만큼 불거리가 풍부하고 재방문이 가능한 역사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산골영화제 '넥스트 액터' 책으로

'넥스트 액터 고아성' 출간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 및 오프라인 극장 상영을 통한 분산 개최를 발표한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가 백은하 배우연구소와 함께 완성한 도서 '넥스트 액터 고아성'을 4일 정식 출간한다.

무주산골영화제와 백은하 배우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넥스트 액터 NEXT ACTOR' 시리즈는 한국영화의 다음 100년을 이끌어 갈 차세대 배우들을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 배우 박정민을 시작으로 여러 콘텐츠를 선보이며 영화제의 메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넥스트 액터 NEXT ACTOR' 프로그램 중 하나인 도서 '넥스트 액터 박정민'은 작년 영화제 개막과 함께 출간되어 현재까지 3쇄를 기록하며 국내 영화 팬들에게는 애장서로, 독립영화 배우들에게는 입문서로 손꼽히고 있다.

2020년 무주산골영화제의 '넥스트 액터 NEXT ACTOR'로 배우 고아성이 선정되어 기대감이 고조된 가운데 배우 고아성을 집중 조명한 도서 '넥스트 액터 고아성'은 총 8개의 챕터로 나누어 배우 고아성은 물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 고아성의 모습까지, 다채로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흥미를 더한다.

고아성의 섬세한 필력이 돋보이는 'FACES 여섯 개의 얼굴' 섹션은 영화 괴물, 여행자, 설국열차, 오피스, 항거: 유관순 이야기 그리고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등의 생생한 현장 사진과 촬영 비하인드가 담겨 읽는 즐거움을 더하며, 여섯 작품에 대한 배우 고아성의 진솔한 이야기는 영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또한 영화 팬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 '토끼리' (@tokkiri)의 감각적인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책 속에 삽입된 배우 고아성의 캐릭터들은 책을 읽는 것을 넘어 보는 재미까지 선사한다.



여기에 비트라는 단위를 통해 탐구한 고아성의 연기론과 여태껏 볼 수 없었던 배우 고아성의 깊은 내면을 엿보게 하는 방대한 인터뷰 자료는 기록물로서 그 가치를 높인다.

뿐만 아니라 감독 봉준호가 직접 배우 고아성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낸 스페셜 챕터까지 더해져 출간된 이 책은 영화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한편,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는 4일 저녁 7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토크, 행사 프로그램 등을 무관객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개최 후, 올해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전환해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되어 있었던 모든 상영작들을 프로그램 별로 나누어 무주 및 서울 등에서 영화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여성의 삶에 담겨진 생명에너지의 움직임

김선강 개인전 'Birth'

gallery숨서 8~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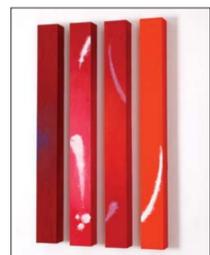
오는 8일~20일 'Birth'라는 전시명으로 gallery숨 전시공간지원기회 '공감-공유' 김선강 개인전이 열린다.

관람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토요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단,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관이다.

gallery숨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에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하는 gallery숨의 의지다.

김선강 작가에 따르면 생명에너지의 응집(凝集)과 확산(擴散)으로 생명이 형성되는 고비마다 '빛'의 역할은 생명탄생의 신호라고 생각한다. 작품에서 볼 수 있는 필획들은 모든 생명의 형성 과정에 관여하는 '생명에너지'를 가시화한 작가본인만의 회화 언어이다. 이것이 하나의 필획에 그치지 않고 작품 자체가 화필축으로 작용하여 전시 공간 자체를 생명에너지가 충만한 장소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화필축은 생명에너지의 강렬한 움직임을 실감할



수 있는 회화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작가에게 Birth는 "생명을 빛다"라는 의미이다. 곧 생명의 생산을 말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생명의 탄생을 실행하는 빛은 '어미'에게 있다. 모든 생명은 '어미'의 존재를 통해 세상과 조우한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통로가 곧 '어미'이다.

우리에겐 '어미'의 역할은 여성의 몫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기르는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이다. 생명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하는 본인의 작품은 한국 여성의 삶에 담겨진 생명에너지의 움직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한국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명에너지를 드러내는 표현 요소들을 연구한 움직임이다.

한편 김선강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김 작가는 현재 여백회, 화기에애, 동질성회, 한국미술협회원으로 전북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한국 현대 풍경화의 국면...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4일부터 7월 19일까지... 이종승·정상근 작가 작품들 선배

무주최북미술관 기획전시회가 4일부터 7월 19일까지 개최된다. '한국 현대 풍경화의 국면'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위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현대미술 분야 동양화와 서양화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이종승 작가와 정상근 작가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이종승 작가는 '움직이는 산' 등 천연안료를 활용한 흑백화기법의 작품 7점을, 정상근 작가는 '어두운 숲과 흙이 있는 곳' 등 유화작품 7점을 선보인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숲과 대지, 흙과 바위 등 대자연의 소재로 한 작품들은 색채의 대비, 경계의 표현을 통해 때로는 명확하게, 번짐과 투영, 추상적 표현을 통해 때로는 모호적으로 다가온다"라며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보석 같은 작품들을 통해 지쳤던 맘을 달래고 스러진 일상을 일으켜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종 공립미술관인 무주최북미술관 이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오후 5시 30분까지 입장 가능)까지 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월요일 휴관)다. /무주=전문선 기자